

또, 고다이라 벽 고대하라, 평창 반격



21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이상화가 은메달을 획득하고 시상식에 앞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화 빙속 500m 0.31초 뒤진 2위...종아리 부상에 고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간판 이상화(스포츠토)가 다시 한 번 고다이라 나오(일본)에게 패했다. 이상화는 21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7초70을 기록, 고다이라(37초39)에게 0.31초 차이로 뒤져 2위를 차지했다. 이상화는 7초에서 세계랭킹 1위 고다이라와 함께 뛰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석패했다. 초반 레이스는 좋았다. 그는 첫 100

m 구간을 전체 3위 기록인 10초44로 끊었다. 고다이라(10초52)보다 앞섰다. 그러나 중반 이후 무섭게 스피드를 끌어올린 고다이라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여자 500m 세계기록(36초36) 보유자인 이상화는 올 시즌 해성처럼 등장한 고다이라에게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작년 11월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에서 입은 오른쪽 종아리 근육 미세 파열 부상이 문제였다. 그는 월드컵 4차 대회까지 출전을 강행했

지만, 2009-2010시즌 이후 7년 만에 '노골드'에 그쳤다. 반면 고다이라는 6차례 출전한 월드컵 대회 5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랭킹 1위로 우뚝 섰다. 이상화는 2월 초 안방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고다이라에게 다시 도전장을 던졌지만, 한 번 더 고개를 떨쳤다. 그는 500m에서 37초48의 시즌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고다이라가 37초1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주파하며 금메달을 양보했다. 당시 이상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기록을 세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올 시즌 고다이라의 빙속 질주는 거침이 없었다. 이번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1.000m에서도 고다이라는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이상화는 4위에 그쳤다. 20일 열린 500m 조 추첨에서 이상화는 고다이라와 같은 조에 배정돼 내외신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고다이라와 맞대결을 펼쳐야 하는 이상화로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상화는 무거운 부담감을 짊어졌다. 오른쪽 종아리 통증은 계속 괴롭혔다. 그는 21일 여자 500m에서 이를 악물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포디움의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고다이라(37초39)의 차지였다. 그러나 이상화의 표정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몸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며 "이번 대회는 좋은 성적을 노리기보다 즐겁게 뛸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에서 무리하기보단 1년 뒤 안방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리겠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빙속 여대표팀 팀추월銀

김보름(강원도)이 이끄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여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대표팀(김보름, 노선영, 박지우)은 21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에서 3분6초67의 기록으로 일본(3분00초0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이 출전했다. 3위는 3분10초23을 기록한 중국이 올랐다. 여자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과 2소에서 경기했다.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2위 성적을 유지했다. 첫 바퀴를 38초36으로 돈 대표팀은 경기 후반까지 안정적인 레이싱을 펼쳤다. 대표팀은 결승선을 앞두고 에이스 김보름이 선두에서 속력을 끌어올렸지만, 일본의 벽을 넘진 못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남 500m 서이라 銀·박세영 銅

서이라(화성시청)와 박세영(화성시청)이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m에서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다. 서이라는 21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마코마나이 실내빙장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40초84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중국의 강호 우다징(40초764)에 0.078초 차로 우승을 내주고 은메달을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박세영은 41초18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1,500m에서 우승한 박세영은 내심 2관왕을 노렸

지만 어렵게 실패했다. 여자부에서는 결승에 진출한 '주장' 심석희(한국체대)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중국의 판커신과 마지막 바퀴를 지난 뒤 서로 엉키는 과정에서 실격판정을 받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장이찌가 43초911의 기록으로 우승했고, 4위로 통과한 일본의 이토 아유코(44초236)가 어부지리로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결승진출에 실패했던 최민정(성남시청)은 파이널B에서 1위를 차지했고, 결승전에서 3위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동메달로 한 단계 승격되는 행운을 얻었다. /연합뉴스

심석희-판커신 동반 실격 왜?

판커신의 '나쁜 손' 인코스 추월하며 반칙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벌어진 심석희(한국체대)와 판커신(중국)의 동반 실격을 놓고 쇼트트랙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심석희는 21일 대회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전에서 판커신과 나란히 실격됐다. 둘은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코너에서 치열한 다툼을 펼쳤고, 코너를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판커신이 왼손으로 심석희의 무릎 부근을 잡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혔다. 판커신의 손에 무릎을 잡힌 심석희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힘겹게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경기 끝난 뒤 심판들은 심석희와 판커신에게 나란히 실격을 선언했다. 판커신은 '나쁜 손'으로 국내 팬들에게 악명이 높다. 그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박승희(스포츠토)의 옷을 잡아채려는 동작을 펼쳤다. 판커신의 손은 박승희를 따라잡지 못했지만, 만약 잡혔더라면 뒤

로 넘어져서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반칙이었다. 판커신은 당시 "중심을 잃어서 그랬다"라는 해명을 내놨고 팬들의 공분을 샀다. 이날 결승 레이스에서 심석희는 경기 내내 판커신의 바로 뒤에서 추월을 노렸다. 마지막 1바퀴를 남기고 바짝 거리를 좁힌 심석희는 마지막 바퀴 코너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코스로 추월을 시도하며 판과 몸싸움을 펼쳤다. 코너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심석희가 추월하는 듯했지만, 그때 판커신의 왼손이 심석희의 오른쪽 무릎 부근을 잡았다. 속도도 떨어진 심석희는 추월하면서 다잡은 금메달을 놓쳤고 실격판정까지 받으면서 동메달도 날렸다. 심석희는 경기 끝난 뒤 "실격 받은 부분은 아마도 서로 밀고 밀리는 과정 때문인 것 같다"며 "중국의 견제를 충분히 대비하고 들어왔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1일 일본 삿포로 마코마나이 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심석희(오른쪽)가 중국 판 커신에게 가로막히고 있다. /연합뉴스



'동계체전 전설' 이채원 크로스컨트리 2연패 좌절

'동계체전의 전설' 이채원(36)이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채원은 21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시라하타야마 오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10km 프리에서 30분 49초 0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국내대회인 동계체전에서 금메달만 67개를 획득한 이채원은 2011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회에 이어 같은 부문에서 2회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고바야시 유키(일본)의 30분 24초 6에 약 24초 뒤졌다. 이채원은 이달 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스키에슬론에서 12위에 올라 한국 크로스컨트리 사상 월드컵 최고 성적을 낸 선수다. 이어진 전국체전에서도 4관왕에 올라 패조의 컨디션을 보이는 듯했지만 이날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은 끝에 시상대 맨 뒷자리를 고바야시에게 내줬다. 이채원은 "후반 코스에 들어갈수록 다리가 아파 스스로 못 가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 싫고 허무했다"고 아쉬워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채원은 "앞으로 남은 15km 프리 매스스타트, 클래식 5km, 계주에 모두 나갈 계획이다. 매스스타트 쪽에서 좋은 성적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